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4. 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- 佛, 이슬람 급진주의자 등 800여명 파리올림픽 참가 제한
 - 4.1 프랑스 정부는 파리 올림픽 보안 강화를 위해 800명의 행사 참여를 제한하였으며, 이 중에는 '급진적 이슬람주의자'와 시위를 부추기는 '급진주의' 성향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
 - ※ 「다르마넝」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참가제한자 중 정보당국의 테러위험인물 목록인 '파일S(fiches S)'로 분류된 15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부언
- 러, 외국인 체류 기간 단축 등 테러 후속 조치 발표
 - 4.2 언론은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사건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연간 90일로 단축하고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외국인 출입국 통제 강화 법안 초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보도
 - ※ 러 내무부는 입국자들이 러시아 법을 위반할 경우 입국과 체류, 거주가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부언

미 주

- 美, ISIS-K에 의한 미국 내 테러 가능성 경고
 - 4.2 언론은 미국이 러시아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ISIS-K가 6개월 안에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ISIS-K의 가장 첫 번째 목표물이 미국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美 연방수사국(FBI)은 불법으로 美 국경을 넘고 있는 이민자들 사이에 ISIS-K가 존재할 수 있다며 ISIS-K의 공격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언

중 동

- 이스라엘, 수도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10만여 명 운집
 - 4.1 언론은 이스라엘 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, 예루살렘에선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여 명이 운집해 총리 즉각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, 인질 협상 합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강경 우파 3곳과 연정을 통해 정권을 잡았는데, 하마스와 전쟁 이후 이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부언

○ 시리아, 시장 차량폭탄 테러로 8명 사망

- 4.1 언론은 시리아 북부 튀르키예 접경 지역에 위치한 아자즈 지역 시장에서 차량폭탄 테러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, 아직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이날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명절인 '이드 알피트르'를 앞두고 인파가 많이 몰려 피해가 컸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韓 관세청-국정원, 총기 부품 등 중동 밀수출 일당 적발

- 3.28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방산업체를 퇴사한 후 前 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사청 허가 없이 수출한 50대 2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

※ 同人들은 '19.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,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 등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

○ 강원·울산경찰청,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

- 3.31 강원·울산 경찰청 등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고자 지자체·군부대와 함께 4월 한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

※ 올해부터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·태국어·중국어·베트남어·러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배포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테러리스트에 납치된 인질 9명 구출

- 3.31 언론은 나이지리아 軍이 보코하람을 소탕하기 위한 「하딘카이 작전」(OPHK)을 수행하던 중 보르노州的 바마 지역에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3명을 사살했으며, 인질로 잡혀있던 여성 3명과 어린이 6명을 구출했다고 보도

※ 「볼라 티누부」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하며 폭력사태 종식을 약속했으나, 지난달에만 보코하람 등에 의해 600여 명이 납치되는 등 치안 불안이 가중

美, 캘리포니아 YouTube 본사 총격 사건

- '18.4.3 美 캘리포니아주 유튜브 본사에서 「나심 나자피 아그담」*이 총기 난사 후 자살, 4명 부상 발생

* 同人(38세/여성)은 이란 태생으로 1996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



<총격 사건 방송>

- 同人은 채식주의 운동가, 피트니스 전문가이자 PETA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,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완전 동물권리 및 완전 채식주의 등을 홍보하였으나,
- 사건 2주전부터 '유튜브가 자신의 영상을 차단하고,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'며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 등을 게재한 후, 범행 자행
- 한편, 경찰이 사건 前日 주차장에서 자고있던 同人을 발견했으나 위협자로 판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, 경찰의 소극적 대응 논란
- 同 사건 이후, 美 内에서는 유튜브 및 기타 소셜 미디어에 대한 플랫폼 보안 조치 강화 필요성과 함께 총기규제 강화 요구가 증가
- ⇒ '텍사스주 韓人 미용실 총기난사'(2022.5, 3명傷) 등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만큼, 재외국민 신변안전 강화 활동 필요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(PETA) >

- (영문 / 별칭)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/ PETA
- (결성/목표) '80.3.22, 동물 권리 보호 및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 증진을 목표로 잉그리드 뉴커크와 알렉스 파체코에 의해 설립
- (활동지역 / 연계세력) 전세계, 다양한 동물 권리 및 환경 보호 단체와 협력
- (캠페인) 공격적인 미디어 캠페인, 유명 인사 참여 광고, 소비자 불매운동, 법적 소송, 비밀 잠입 조사 등
 - ※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통해 동물 권리 인식 제고
- (특징) 동물 권리 운동에서 가장 알려지고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 중 하나, 때로는 그 방법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함

